

보도시점 2024. 4. 17.(수) 11:00
4.18.(목) 조간

배포 2024. 4. 17.(수)

희토류 등 공급망 위기,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IPEF) 공급망협정으로 돌파구 찾는다

- 이날 발효한 IPEF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 논의
- 우리 국익 최대한 반영 위해 8대 산업 공급망 프로젝트 우선 검토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안덕근, 이하 산업부)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17일(수) 오후 첫 「신통상 라운드 테이블」을 개최하여 공급망 통상 전략을 점검한다.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(이하 IPEF) 공급망 협정 발효일(4.17)에 맞춰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업종별 협·단체, 학계, 연구기관들이 참석하여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를 위한 IPEF 협정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.

* (협회)반도체배터리가진회 등 (전문가)학계대외연산업연로폼 등 (유관기관)코트라무역협화광해공단 등

IPEF 공급망 협정은 14개국 회원국*간 공급망 협력 분야 및 품목을 지정하고 무역장벽 최소화, 신규 비즈니스 매칭, 공동 연구개발(R&D), 인프라 개발, 물류 병목 현상 해결, 기술 및 인력 개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.

* 한, 미, 일, 호, 뉴, 인도, 피지, 아세안 7개국(싱, 말련, 인니, 베, 필, 태, 브루나이)

이에 금일 회의에서는 지난 3월 25일 발표된 ‘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’에 포함된 요소, 흑연, 희토 영구 자석 등의 수입처 다변화, 연구개발(R&D), 물류 개선 등 사업이 IPEF 회원국과 공동으로 추진 가능한지 점검하였으며, 필요시 향후 IPEF 협정 이행 과정에서 상기 품목이 협력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해 나가기로 하였다.

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“산업공급망 정책을 지원하는 공급망 통상 정책이 필요한 바, 이에 따른 IPEF 공급망 협정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”이며, “업계차원의 세부 활용방안을 정부에 건의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, 인태지역의 새로운 공급망 재편과정에서 우리 국익을 최대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신통상전략지원관 신통상전략과	책임자	과 장	윤선영 (044-203-4870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신 (044-203-4876)
			사무관	원미경 (044-203-4871)

참고

제1차 신통상 라운드 테이블 개요

□ 목 적

- IPEF 공급망 협정 발효('24.4.17.)에 따라 전문가, 유관기관, 업계 등과 우리 공급망 안정화 및 다변화 위한 협정활용 방안 등 논의 필요

* (신통상 라운드 테이블) 공급망·디지털·기후에너지 등 새로운 통상현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과 논의 플랫폼으로 활용('21~'23년, 총 12회)

□ 개 요

- (일시/장소) '24.4.17.(수) 14:00~16:00, 산업부 5층 대회의실(세종)
- (참석자) 통상교섭본부장(주재), 신통상전략지원관, 신통상전략과장, 산업공급망정책과장 등
 - (유관기관) 한국무역협회,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, 한국광해광업공단 등
 - (연구기관) 산업연구원,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
 - (업종별 협단체) 반도체협회, 기계산업진흥회, 배터리협회 등
 - (로펌 등) 학계, 법무법인 태평양, 김앤장 등

□ 세부일정(안)

시 간		내 용	비 고
14:00~14:10	10'	모두 발언	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
14:10~14:40	30'	❶ 공급망 협정의 의의와 주요내용	산업부
		❷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추진계획	
14:40~15:55	75'	공급망 재편 대응 위한 IPEF 협정 활용방안	참석자
15:55~16:00	5'	마무리 발언	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